



동성애 결사반대 위한 기도회 개최

기독교지도자협, 동성애자들 건강한 사회인 되기를 기도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 여 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홀에서 동성애 결사반대와 북한 도발방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동성애, 동성혼의 잘못된 문화를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법으로 제정하려는 정지권의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도자협의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으로 결사반대할 것”을 선언했다.

지도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도 발표, 동성애, 동성혼에 빠진 형제지배들은 잘못된 현실을 현명하게 판단해 한사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더불어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이 성명서는 또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국민행동, 문화



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잘 마무리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도회는 또 특별기도시간도 갖고 ‘죄악 된 동성애의 추방을 위하여’ 김기원 목사(동성애반대 추진위원장), ‘사탄에게 포로 된 동성애자의 구원을 위하여’ 장병찬 목사(동성애반대 추진위원장),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한반도 안전을 위하여’ 이흥규 목사(동성애반대 추진위원)가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김진호 목사(공동회장)의 레 18:22 롬 1:24-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동성애를 절대반대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이석일 목사(동성애퇴치 위원장)의 특강,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후 최윤권 목사(공동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장중앙총회, 제100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에 백기환 목사 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총회장 백기환 목사)의 제100회 정기총회가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성총회’라는 주제로 지난 3일 서울 중앙임마누엘센터 대강당에서 84개 노회 총대 39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총회장에 백기환 목사(서울중앙교회)를 선임하고 각부 임원은 신임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총회 예배는 이강택 목사(서기)의 사회로 ‘정기총회 및 남양주 시대를 이루는 임마누엘 성총회를 위하여’ 이근성 목사(정치부장)가, ‘본 교단 직영 중앙신학대학원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최영순 목사(학교법인 이사장)가, ‘중앙총회신학과 인준신학 발전을 위하여’ 류금순 목사(중앙총회신학 학장)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이건호 목사(행정부총회장)가, ‘CTS기독교 TV발전을 위하여’ 김재아 목사(CTS기독교 TV 교단방송이사)가, ‘한민족의 구원과 통일을 위하여’ 고금용 목사(대외부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이어 백기환 목사의 시 126:1-26 말씀을 본문으로 ‘성 총회에 대시를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임성자 목사(성찬집례위원장)의 집례(성찬위원 이복순, 유금순, 김윤희, 송순자, 박명옥, 신혜숙, 최영순, 최민숙, 최영희, 오향조 목사)로 성찬예식 후에 송영우 장로(CTS네트워크 대표)가 축사를 했다.

예장중앙총회는 이번 총회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분위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단 발전방안으로 교단 직영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전과 이를 위한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교단 내 교역자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 및 75세 이상 공로 목회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기증의 날 기념 ‘생명의 물결 걷기대회’

“생명을 살린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6일, 제사상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15년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독삼유원지 내 수변부대에서 장기기증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가자는 취지의 2015 생명의 물결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생전신 장기기증인 및 이신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자원봉사자 등 782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걷기대회에서는 그림 작가 53명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91명이 직접

그린 기증인의 초상화 140여 점 전시됐다.

전시회는 기증인들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 가족들을 애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 현장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유가족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 기증인의 사연과 함께 장기기증과 관련한 경험 등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이번 걷기대회 현장에는 생면부지 타인에게 자신의 신장하나를 생전 시에 기증한 신장기증

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증인의 벽을 설치·운영하며, 생전신 신장기증인과 이신인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신장기증의 역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 체험부스,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종이공예,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를 통해 800여 명의 시민들과 생명나눔의 감동을 나눴다. 또한 배우 김유리 씨, 배우 생방송 씨, 개그맨 김대현 씨, 스포츠캐스터 이나영도 흥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전했다.

박진택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을 애우하고 이들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진행하는 걷기대회에 많은 서약자와 기증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본부는 기증인들의 숭고한 나눔을 기리고,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때까지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 사랑총보팀 02-363-2114(내선5번)



개혁선교 정기노회, 현 임원 유임

김신자 목사 회원 허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선교)총회(총회장 박남수 목사)는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시온교회에서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현 임원을 1년 더 유임하기로 하는 한편 김신자 목사를 서울노회 회원으로 허임하고, 김신자 목사를 부서기로 임명했다.

1부 예배는 부노회장 한근수 목사의 사회로 감사 송길배 목사의 기도, 노회장 백정자 목사의 고후 12: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 안에서 지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성찬식, 총회장 박남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노회장 백정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



의는 부총회장 김영희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회원점령과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후 감사기도 및 회개기도 등을 받았다. 계속된 회의는 안건토의 시간을 갖고 노회 및 교단 발

전책을 논의하는 한편 임원진 구성도 완료하고 임인목 선교사에 대한 선교금전 전달식과 함께 선교사역을 위한 특별기도시간도 가졌다.

대신-백석 통합, 교단 명칭은 예장대신

대신 개혁협도 함께하는교회에서 속회 총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와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지난 14일과 15일 수원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 컨벤션센터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했다. 양 교단은 지난 9월 1일 통합협의회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협상단장을 맡은 유창국(대신),이종승(백석) 부총회장의 서명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장장 8개월 간 10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신학노선, 목사자격, 노회구성, 율리규정 등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다. 또 양 교단은 서로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교 모범을 적용하는 등 배려와 양보로 모든 일을 추진했다.

지난 14일 열린 통합총회는 ‘믿음으로 하 나되어 사랑하는 총회’(창 2:24-25)라는 주제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통합헌법과 규칙 추진, 임원선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기타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임원은 양 교단 합의에 따라 통합총회장은 장종현 목사, 목사 제1부총회장 백석 이종승 목사, 제2부총회장 대신 유창국 목사, 제3부총회장 백석이주환 목사, 제4부총회장 대신 박근상 목사, 장로부총회장 대신 이정환 장로, 백석 김용민 장로, 사무총장은 백석 이경옥 목사, 대신 홍호수 목사를 추대했다.

이와관련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개혁협의회 소속 총대들은 49회 총회에서 통합의 조건 결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대신과 백석의 통합은 불법이라며 이날 오후 6시 함께하는 교회에서 직전총회장인 최순영 목사를 의장으로 예장대신 60회 속회총회를 개최, 자격을 정치당원 총대들을 복권시키고 수습전권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총회장에 박종근 목사(모자이크교회), 부총회장에 양지호 목사(인천성광교회),

서기 김동서 목사, 회의록서기 박용순 목사, 회계 최승호 장로 등을 임무보자가 없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3년 임기의 선출직인 총무는 홍호수 목사를 해임하고 조강신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장에 선출된 박종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가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자생교단으로서의 대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교단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신의 정신을 이어 목회현장 사역에 임하자”고 당부하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유지재단에서 현의한 총회회관 매각과 새로운 총회회관 매입 허락, 각종 교단 개혁인들을 처리했다.

“올해 추석에는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려보자”

‘고향교회 · 작은 교회 방문격려’ 캠페인 전개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명절, 고향교회와 작은 교회를 찾아가 격려하는 일은 소외된 교회에 힘을 주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 작은 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이 개 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열려 이번에 10번째이다.

미래목회포럼은 캠페인 취지에 대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은 70%가 넘는 농·어촌교회와 작은 개척·미지림교회를 돕는 일”이라며 “도시의 대형교회들은 몸집이 커지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는 시골의 농 · 어촌교회와 작은 개척교회였다”며 “작은 시골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가, 그곳의 교회들을 다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농 · 어촌교회를 배경으로 성장해 온 도시의 교회들이 시골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신앙의 뿌리가 이런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었기에 ‘한잔기는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고향을 방문했다가도 주일을 지킨다고 그냥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교인들 가운데 하다했다”며 “도시의 교회들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만 일”이라며 “도시의 대형교회들은 몸집이 커지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지역교회들을 위해 이 캠페인의 구체적 실천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 ‘우리 교회’ 혹은 ‘내 교회’라는 의식을 전향하고 고향의 작은 교회들에 관심을 기울여 성도들이 소외된 교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과 설날이라도 고향 교회, 작은 교회로 성도들을 파송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번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0

일 주일에 광고와 주보를 통해 교인들의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고 차량운행을 중단하자는 것 등이다.

이윤재 대표는 “시골의 개척·미지림교회를 향한 배려와 격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필요하다”며 “명절에 성도들을 시골교회로 파송하는 일은 웬만한 지림교회들이라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며 한국교회가 나눔과 격려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 하조대교회 김승을 목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장에서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귀성객들의 고향교회 방문이 소규모 농어촌 교회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아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장로, (사)한·미 문화협회 이사장 취임

“미국과 친선, 교류협력은 굳게 하면서도 할 말은 분명히 해야 ...”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 (사)한·미문화협회의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 삼정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의 ‘(사)한·미문화협회 제15주년 창립 기념 및 이사장 취임식’이 정계, 교계, 학계, 한·미관계자 등 1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영진 신임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해방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주변의 정세와 남·북 관계가 매우 위중한 시점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교류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특히 250만 미주한인은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서 23세 우리 한인 청년 대학생들 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비전을 심어주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 귀한 일을 맡게 되어 깊은 사명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굳건한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대로는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는 건전하고 진정한 우방으로 거듭 나



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축하사에서 “김영진 이사장께서 해외한인의 날 제정을 주도하고 700만 해외동포의 오랜 숙원인 참정권 회복을 위한 청원운동과 함께 지금은 해외한인청을 신설하는 입법청원운동을 전개 중에 또 이번에 이사장을 맡게 됨을 축하드리며 우리 국회 최대 중진위원으로서 민족문제해결과 인권, 정의, 평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회와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작

은 힘이마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사)한·미문화협회에는 명예이사장 신호범 미주상원부의장, 상임고문에 김상원 전 대법관, 김덕룡 전 장관, 김현옥 전 평통수석부의장, 이경재 전 의원,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 정희정 전 총장, 신용환 대표, 임용근 오래된 주상원의원 등 유명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날 파어진 김희선 총회장 이사인 유인하 전의원, 원광호 전의원, 이광동 한국문화원연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방회 제주도 여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로움과 비경 만끽

여행 내내 서로 배려, 지방회 발전과 교회 부흥 위해 헌신 다짐

항도부산 바닷바람처럼 역센 부산시민들, 낭만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의 기질, 유흥과 환락의 도시 부산 등 부산을 아필하는 말들이 유난히도 많다. 그만큼 부산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처럼 척박한 목회환경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부산지방회 36명의 회원들이 한 미음 되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9월 7일(월) 오전 8시 부산공항을 출발한 회원들은 제주에 도착하여 현지 담당자와 가이드팀을 가진 후 45인승 버스를 타고 성산일출봉에 도착하여 도착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방회장 한명정 목사의 설교 말씀, 지방회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 중경회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첫 일정으로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드라마 올인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한 섭지코지를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현지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성읍민속마을, 애코랜드, 용두암, 용연아름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로움과 비경을 만끽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날 일정은 천지연폭포를 시작으로 현무암절 용암에서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천연기념물 제443호 주상절리를 둘러보았다. 오묘하게도 육각형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돌아보고 석부자 테마파크, 점보빌리지 코끼리쇼,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라도와 한라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히 제주올레길 코스로도 유명한 송악산을 돌아보며 둘째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돌아와서는 중경회장 정기영 목사를 감사로 '백년 목회와 영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모든 회원이 함께 했다.

3일째 되는 날 일정은 금능석물원을 시작으로 신비의 도로, 토산품점 등을 방문했다. 금능석물원은 그냥 잘 만든 석물이라고만 넘기기에 너무나 독창적인 표현과 해석의 작품들이 가득했으며, 신비의 도로는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일명 착시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에서 물을 뿌려보며 물이 거꾸로 올라 가는듯한 광경을 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회원들과 함께 하기도 했으며 첫날 저녁에 있었던 불림대회에서는 박용호 목사가 남자 1등, 서미곤 목사가 여자 1등에 올라 받은 상금으로 간식을 나눠먹기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함께 했다. 둘째날에는 교회(70세)를 맞은 박종근 목사를 축하하며 교회기념케익을 지르기도 했다. (오른쪽 맨 위 사진)

회원들은 2박 3일 여행을 함께 하는 내내 서로 배려하고 지방회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용기를 북돋워 주고 더욱 알찬 부산지방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9월 월례회,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월례회, '큰 용사가 되자' 서로 격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4일(금) 오전 11시 여수 순복음은종교회(담임 서은자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식 목사의 사회, 배영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말씀 기도예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가 출 1:8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란 주제의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한 후 중경회장인 김갑신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



주제로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이동하는 모습에 바로 보이는 서은자 목사의 부모가 운영

하는 횡집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이충만 목사) 9월 월례회가 지난 3일(목) 오전 11시 천안서북교회(담임 오승욱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선기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임영진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대 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회장 이충만 목사(세종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사 6:12 말씀을 본문으로 '큰 용사가 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계 노우석 목사(평안교회)의 헌금기도, 중경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충만 목사의 인도로 중경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 기도로 시작하여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교단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순복음추계교회)의 기도모임 회의를 마

무리 하였다.

3부 교제 시간에는 천안서북교회에서 맞이하는 사탄사탄, 칼국수를 오찬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쳤다.

'순교의 신앙 고백하며, 헌신의 삶 다짐'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달 24일~25일(1박2일) 국내성지순례 제2탄으로 김계금산교회와 영광 연산교회를 야와 월교회 그리고 예수병원 박물관을 탐방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곳은 날씨 가운데 진행된 여행이었지만 빛진 자의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니를 돌아보며 헌신의 삶을 살 수

국내 성지순례 2탄

있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금산교회는 한국교회에 유일하게 보존된 '기'자 교회(예배드리는 동안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구분되어진 구조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77인의 이름담고 처참한 순교의 현장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칼과 죽창의 시퍼런 위협 앞에서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고 아비를 때리면 살려주겠다는 반인륜적인 타협 앞에서 영광의 순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 3대를 이어 순교로 믿음의 본이 된 목회자의 삶을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가슴 저미듯이 몰려오는 아픔과 전율을 느끼며 회원들은 손을 모으며 신앙의 본을 받아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가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환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치료하고 희생해 주신 외국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의 빔을 받고, 우리도 그 빔을 갚아야 한다는 전전한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월례회, 올바른 목회자로서의 자세 당부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신두리에 소재한 안성은혜교회(담임 정세장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정세장 목사(안성은혜교회)의 사회,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임은나무교회)의 기도, 중경회장 이규호 목사(순복음동산교회)의 설교, 오용득 목사(진리외빛교회)의 헌금기도, 중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 목사는 빌 2:1-8 말씀을 본문으로 '올바른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설교를 통해 참석한 지방회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며



축복했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 주재로 각종 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 10월 자유회 일정, 총회발 전기금 납부, 회원들의 지방회 행사 참석 관련 건등이 논의되었다

3부 순서로 중경회장 정석현 목사와 정세장 목사의 공도읍에 위치한 교회당 공사현장에 방문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모았으며, 정세장 목사와 사모가 준비한 갈비탕을 대접받으며 교제함으로 경기동남지방회 9월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양사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추악한 모습이라도 보이지 말자!

‘이그나티우스’ (Ignatius of Antioch)는 소아시아 다스 교회에 보내는 일곱 통의 편지를 썼다고 전해지는 그중 한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그는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나는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야수(野獸)와 싸우고 있다. 열 마리 표범, 즉 그러한 수의 군인들에게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한 대우를 해 준다는 때에도 일층 사납게 구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법 부당한 가운데서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야수에게 축복되기를..저는 저 자신을 위해 야수가 일찍이 발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야수들이 일찍이 저를 먹어 주기를, 그리고 손낼 것이 아닌 듯이 저를 두려워 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기를 위해 교사하기도 하고 애ittel 보이려고도 합니다. 만일 야수들이 저를 먹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무리로라도 먹게 하려 합니다. 실패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한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 모두가 제게 아픔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거나, 십자가거나, 야수의 습격이

거나, 천 조각으로 뼈를 쪼갬도 해도, 온 몸을 부서뜨림 당한다 해도, 마귀의 모든 고난이 제게 향하여 와도 좋습니다. 저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것을 서마니에서 앞에 말한 여러 교회에서 보냈던 것이다.(출처 기독교 순교사)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아내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그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스승을 둔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후계자요, 안디옥교회의 제2대 감독을 맡았으며, 그는 분열과 이단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일처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순교자 말로 자신의 직분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신앙고백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했으며, 그 사유로 시리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사나운 야수들의 밥이 되는 것까지도 기꺼이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의 멘토 운운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교회성

장’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성장해야 하겠으나, ‘베드로’의 신앙을 전수 받은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어떠한 신앙을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부터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멘토가 되고 있는가?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가르침 받은 신앙을 누리고 있는가? 자문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는 그토록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갈망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을까요? 비록 순교를 갈망한다면 위선이 될까봐 갈등한다 해도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아낌없이 열리는 장로교단의 9월 총회를 두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 죽도록 충성 하겠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목양/우리교회음향은?

문형만 장로 // 전 삼지대 원주대 강사, 전 MBC, KBS 프로그래머 겸 리포터, 현 대림음향 사외이사, 크레딧 사운드 이사, 현 낙원선교센터 담당자



‘음향-마이크라인 손상이 가장 많아...’

교회에서 음향을 다루다 보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립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라인’ (Line)이 아닌가 합니다.

대체적으로 음향에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라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라인을 꺾을 질경 질경 찢듯이 밟고 다니다거나 미서 또는 스피커에 연결된 라인을 순서에 의해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선을 잡아당기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 라인은, 선과 잭(jack) 사이를 납으로 땀질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납땀을 한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어 소리의 전달이 용이하지 않거나, 심한 ‘노이즈(잡음)’를 유발시킵니다.

또한 무거운 체중으로 선을 밟거나 꼬인 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길 경우 파복에 찢인 미세한 선들이 끊어져 이 또한 심한 노이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취급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수련회나 집회가 외판 곳에서 진행될 때 이런 문제에 부딪쳐 곤혹을 치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때를 대비할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도 간단하게 ‘라인’을 수리하는 방법은 배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상된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새 라인을 사는 돈이면, 땀인두와 땀질용 납을 사고도 돈이 남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숙달되는 것이 바로 이 라인 땀질 작업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손상되는 ‘라인’이 마이크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인은 거의 고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마이크 라인은 수시로 마이크와 믹서에 넣고 빼고, 감고,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라인’의 손상 부분을 보면 대개 잭과 라인의 연결 부분인데, ‘케논 잭’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돌려서 분리하면 선과 잭의 연결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땀질 부분의 선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매끄럽지 못한 땀질로 인해 다른 선과 합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땀하는 부위에 3개의 돌출 부분이 있고 그 돌출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부분마다 고유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2번을 “+”로 3번을 “-”로 계산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마이크 선의 파복을 벗겨 붉은 선과 검은 선 그리고 은색 선을 분리해서 가깝게 꼬아 납을 녹여 라인과 잭의 연결 부위에 가깝게 분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살기

(마 25:1-1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신학은 주로 세상 끝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또 다른 신학은 구원이 가져오는 현재적 성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셨으며, 다른 날 제자들에게는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오게 될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스위스의 신약학자 오스카 굴만(Oscar Cullmann, 1902-1999)은 그러한 천국의 이중구조에 대해 지혜롭게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여전히 미래로부터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나라,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긴장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세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종말론적 소망을 갖는 사람은 현재적 삶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과 속, 영과 육, 내세와 현세를 나

누고 싶어 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는 늘 통전적(統全的 holistic)이었습니다. 분부하듯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신앙이 썩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체의 삶을 통해 가장 고귀한 영적 이상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덧없이 느껴지는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며 염세적으로 살라고 하시거나, 앞날은 모르는 일이나 오늘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폐락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귄 안에서 천국의 윤리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귀중한 손님들을 당신의 집에 초대할 적이 있습니까? 초대할 한 집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손님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랜만에 대청소도 할 것입니다. 손님과의 즐거운 식사를 상상이며 요리력을 뽐내거려며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손님의 분위기와 어울릴만한 형형색색의 꽃들로 화분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밥을 뽕뽕 흘리고 임하지만 행복한 기대와 긴장으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릅니다. 초대할 자의 마음, 행동, 시간은 오직 손님에 오는 그 때에 속해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며 세 시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과 진지한 삶의 열정.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함께 사는 길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적 신앙자세입니다.

지킵니다.

너무 두껍게 납땀을 하면 납 물이 흘러 다른 라인에 접촉되어 합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얇게 납을 입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 2번 라인에 붉은 선, 검은 색 선 (색은 다를 수 있다)을 3번에 은색선 보통 ‘실드(Shield)’ 선이라 불리는 은색 선을 1번에 차례로 접착시킨 후, 뜨거운 땀인두로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그 땀인두의 가열된 열로 잭과 라인에 붙은 납이 녹아 쉽게 연결됩니다.

글로 보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생각하시고 그

리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몇 번 반복하시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끝으로 납땀을 하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잭에서 분리된 ‘고정 텀(땀질리)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두개를 다시 조립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고정 텀을 다시 끼우기 위해 납땀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저! 이걸 빼놓고 패웠다. 이런 어쩐다?”
관참습니다. 저증은 나시겠지만 시간 많은데 다시 한번 납땀한 자리를 녹여 떼어 내고 텀을 라인에 끼워 놓은 다음 다시 패우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시면 전화주세요^^

상담문의 010)9778-5916

목사님! 혹 찾으시던 제품이 이것이 아닌가요?

열악한 음향환경을 최상의 소리로 만들어주는 V50 V60 마이크 프리

현재의 음향상태를 더 힘있게! 더 명료하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소리예술의 결정판입니다.



마이크 프리 V60

- 목사님 강대상용
- 마이크 인풋, 아웃풋 2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EFFECTOR ON/OFF 스위치 박스

한류를 선도하는 K-pop!!

그 뒤에는 세계적인 Credit Sound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방송국, 공연장, 유명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Q-Box 등은 우리가 만들고 세계적인 음향장비와 겨루고 있는 Credit Sound사의 제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는 낙원선교센터의 요청으로, 열악한 교회 음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redit Sound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v50과 v60 마이크 프리는, 출시되자마자 목사님들과 독일 바이어들이 극찬한 제품으로, 기능과 성능은 고가로, 가격은 초저가에 형성된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현재의 음향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향상시켜주는 v50과 v60 마이크 프리는 말 그대로 소리예술입니다.



마이크 프리 V50

- 찬양인도자, 찬양사역자, 성가대 마이크용
- 마이크 인풋, 아웃풋 1채널
- 고음질 마이크 프리 앰프 + 이펙터
- Reverb (찬양용 음향효과)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의 브랜드
CREDIT
SOUND

특징!

1 최상의 회로설계를 탑재한 마이크 전용 프리앰프로서 마이크에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설교와 찬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찬양할 때 도움을 주는 음향효과기기(Reverb)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ON/OFF 스위치를 간단히 조작하여 음향엔지니어 없이도 사용자가 버튼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음향효과는 프로가수들도 가장시 활용하며 음정처리를 힘들이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 기기는 이런 음향효과를 누구든 간단하게 쉽게 쓸수 있도록하여 프로에 버금가는 음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상의 Sound를 제공합니다.

Homepage에 들어오시면 credit sound 제품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www.creditsound.co.kr 상담 : 문형만 010-9778-5916 하동희 010-5718-4062

새말중앙교회 새성전입당 감사예배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렬 목사) 새말중앙교회(담임 김영배 목사) 입당감사예배가 지난 12일(토) 오전 11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전제로 105(오원리 752-9) 동교회 새성전에서 드려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의식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지방회장 유홍렬 목사(영월열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개식사, 지방회 총무 진장길 목사(태백성지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최정희 목사(태백성광교회)의 성경봉독, 동교동교회 음동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음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한 설교를 통해 "성전을 지어 입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전하고 "그동안 힘든 과정도 많았고 눈물의 기도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입당하게 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한 뒤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말중앙교회 담임 김영배 목사의 건축경과보고, 전 교단 신학발전위원장 이광



신 목사(아기배교회)의 축사, 지방회 직전회장 박순용 목사(원주총성교회)와 청주지방회장 정의섭 목사(청주한소망교회)의 권면, 지방회 회계 장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새말중앙교회 김영배 권사의 축사, 김영배 목사의 광고,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033)342-1017, 010-7287,1017

010-2616-1017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전제로 105 (오원리 752-9)

순복음찬양교회 이전 및 안수집사 임직식

경기남 월례회 · 여교역자국 임원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4일(월) 순복음찬양교회(담임 김효신 목사) 이전 및 안수집사 임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미자 목사의 기도, 김남순 목사의 약 5:7~11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가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며 "인내하며 내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위하여 당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며 "불평하지 말고 옴의 인내를 배워 하나님께 면류관 얻기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최정룡 목사의 헌금기도 후 이어진 2부 임직식은 이원희 목사의 권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봉헌과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3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 주재로 각종 화두처리를 처리했다. 회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지방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



순복음찬양교회 이전 및 안수집사 임직식 기념촬영



여교역자국 임원 회를 마치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재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④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 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 바람.
- ⑤ 접수방법: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 · 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 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 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금강교회, 도마성지순례 A코스 탐방

충남지방회 성지순례

지난달 15일, 복음으로 통일될 조국 위해 깨어 있어야

금강교회는 지난달 15일 2천년 전 사도 도마가 실크로드의 마지막 땅이 한국에 도착해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김해 도마성지(가야국) 순례를 다녀왔다.

도마성지순례는 A코스, B코스, C코스로 있는데 그중에서 금강교회는 A코스를 돌리보았다.

먼저 대구의 조국현 박사의 인도로 김해구지봉, 김수로왕릉, 허왕후릉, 능현, 파사석탑, 국립김해박물관, 봉황동유적지 등을 견학한 다음 서기 48년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허왕후차(아유르베다)를 미시며 가이드를 하는 목사로부터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이드 박사는 "2천년 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유적조사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면서 "사도 도마는 낙동강의 가야지역에서 AD 42년에 복음을 전했으며, 김수로왕과 허왕후는 기독교인이었으며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였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김수로왕은 서기 42년 3월 3일(음력) 사도 도마에게 세례 받고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3월 15일 부활절에 가락국 임금이 되었으며, 인도의 아유르타공 공주 허왕후가 가야국의 김수로와 맺어진 것도 사도 도마의 중매로 이루어진 것

으로 한국(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인도의 공주였던 허왕후의 결혼식은 AD 48년 7월 27일 경남 김해에서 있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도 세계기독교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라 진덕왕 2년(AD 648) 김춘추가 당나라 태종황제로부터 새로 편찬한 신구약 성경을 받아왔으며, 도마의 가야국 복음전파는 고구려의 불교유입(372년)보다 330년 앞선다"며 "한국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순 목사(금강교회 담임)는 "국내외 선교 등 여러 정황을 미뤄 볼 때 주님의 뜻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한국(섬쪽)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선교와 경제대국인 한국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앞서가신 선배목사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조국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7세까지 산 허왕후가 먹은 것으로 알려진 허왕후 약초비빔밥은 성인병 예방과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송곡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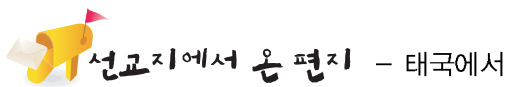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태국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씨앗다감!
무더운 여름철 평안하신지요? 태국은 땀기열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소멸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드립니다.

목요일에
목요일예배를 개설했습니다. 태국은 대부분이 밋벌이 가정들이라 주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몇 명인데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와 같은 예배를 향한 열망과 열정이 방콕안 디옥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중의예배도 잘 정착되고 모든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산죽교회 방문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온 가족이 산죽 교회를 방문(약 1,500km)하고 돌아왔습니다. 매년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과 온 가족이 산죽과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했는데, 방콕안 디옥교회의 전임목회자가 되면서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니다.
우기철이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매위가 교회 목회자(씨로해 목사)를 만나서 잠시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동하여 매번너이 교회에 들렀는데 목회자가 안보여 근처 성도에게 물었더니, 티위 목사와 두 자녀가 땀기열에 걸려서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교회만 둘러보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매씨리양 시내로 가는 길은 아직 일부 구간이 도로포장이 안 되고 길이 험해서 늦게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고 다음날 건축 중인 후위이루업교회 건축현장을 보고, 짜끄라롱 목사와 함께 건축현장에 대해 듣고 같이 기도하고 티위 목사를 방문했습니다.

후위이루업교회는 현재 지붕을 씌우고 벽돌로 벽면을 쌓는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공사에 차질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경에 한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산죽교회 중에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전체 모임과 수련회 등 센터로 활용하고자 조금 크게 공사가 되어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지만 잘 마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티위 목사는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매번너이 지역

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시내에 거주하면서 주 말에 들어가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법인 사역 이모저모
생명시대 법인을 통한 이웃돕기 사역이 계속해서 유용한 복음의 도구로 이웃들을 돕는 도구가 되어 갑니다.
매달 초에 사랑의 쌀과 식료품을 나누고 매주 생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바를 지원하고, 극빈자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학금(교통비)을 제공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 및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예배 및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잇 성도는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 살며 두 딸을 돌보기 위해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인데, 공장일이 끝나면 부업으로 하드웨어를 하고 있지만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달부터는 법인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법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돌봄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그동안 돌보던 몇몇 아이들이 추방당하고,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경찰이 찾아와서 더 이상 수업이 어려워 문을 닫고, 대신 교사가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을 그쪽 지역에도 열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중에 있지만 시간이 걸려야 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달 3째 주부터 방콕안 디옥교회에서 주중에 임시학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봉고차를 임대해서 주중 3-4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명의 아이들과 교사부부, 그리고 크리스 인도네시아인 부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짜트네 썩터요!” 특송(울음)을 해주서 태국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학교에 가서 찬양과 율동,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많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엌 및 화장실(샤워)과 다용도 모임 공간
넓은 슬레이트 지붕도 교체하고 벌어진 틈을 보수하는 작업을 3년 전에 했었는데, 매년 지반이 약해서 본 건물 뒤로 이어 만든 주방이 주저앉고 있어서 새로 부엌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세로 8m로 바닥에 5m 깊이의 기둥을 한 구덩이에 4개씩 총 36개의 기둥을 박고 그 위에 화장실과 샤워실과 주방을 만들면 매주 화장실 부족현상도 막고, 예배 후 식사도 장의지를 맡아내고 장 책상을 펴서 식사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벌어진 틈으로 쥐와 투게(20-30cm의 도마뱀 종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다용도 실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기대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담당하고 부족한 나머지 비용이 300만 원정도 예상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제목
-매안나 할머니는 만 75세이신데 폐암과 천식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 지셔서 주일예배도 참석 못하고 계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통나롱 할아버지의 고혈압과 당뇨와 무릎관절염 치료를 위해
-나롱작 성도(남, 48세)의 중풍병으로 인한 후유증(언어와 말하기 등) 회복을 위해
-주방과 다용도실 공사를 위한 필요 300만원을 채워주시도록
항상 태국선교를 위한 여러 분들의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리아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컴뚎막크랍!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태국에서 김학봉, 서미삭(주선, 주은, 선기) 선교사 드림



9월 총회현장에 동성애반대 책자 배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사역설명회에서 밝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병희·황수원 목사, 이하 한동위)가 지난 10일(목) 오전 서울 양파서터에서 사역설명회를 가지고 9.10월 각 교단 총회와 노회 개최현장에 '동성애 조장 반대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상임대표 황수원 목사(한정총 대표회장)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교회와 강단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도 원천봉쇄하는 ‘차별금지법’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5만여 한국교회와 일천만 성도는 이번 기회에 연합해서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월 각 교단 총회와 10월 노회를 앞두고 한동위는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배포하며, 동영상을 총회현장에서 상영토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날 발간된 소책자는 64페이지로 안드레아 칼리안의 강연,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 답이 있다.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동성애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자 서문에서 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전통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교회가 동성애 조장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오는 9월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여기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회현장에서 상영하게 될 동영상은 7분용으로 동성애의 흐름과 동성애가 인권인가에 대한 조영, 그리고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 등을 담고 있다. USB에는 이밖에 기타 관련 동영상들을 담아 총회현장에서 시청자에게 배포하게 된다.
한동위는 향후 △책자 및 논문 발행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조정하는 내용 삭제 △질병관리위원회에 2012년 이후 에이즈 발생 원인과 대책·현황 공개 청구 △동성결혼 등에 대한 법 제정 저지 등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www.kccchkr

한국생명의전화 제39주년 창립기념식 20년 이상 상담봉사자들 격려



‘한국생명의전화 제39주년 창립기념식’이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이날 생명의전화 김중훈 이사장은 축하와 격려메시지를 통해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상담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상담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는 최근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다룬 베스트셀러 ‘형준심리학 인사이드아웃’의 저자인 최원호 교육학박사(국제정

소년문화교류협회 이사장)가 강사로 초청됐다.
서울생명의전화 원장인 하상훈 박사는 “한국 최고의 생명존중 교육을 실천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생명의전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자살하는 사람보다 라이프라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전화를 통해 구조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5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상담한 봉사자 및 20년 이상된 상담봉사자들에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공로를 인정해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갈 빠진 2013~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후휴 365일 주문접수)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카트만두 선교 현장에서

불안한 정국의 네팔에도 복음이...

4월 지진 이후 네팔 땅엔 소요, 데모가 연이어 발생 합니다. 간헐적으로 2일간 시민의 발을 묶는 ‘밴다’(일종의 계엄상태)가 공포되면 오토바이와 관용차를 제외한 모든 정기운행 차량들은 쫓박할 수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지방 어느 도시에서는 데모대를 진압하던 경찰이 7명이나 폭력에 의해 현장에서 살해당하고 종교인들의 시위, 정부요원들간의 입씨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정국 속에서도 기존 내각의 수반은 집권을 장악하고 구태의연하고 그릇된 관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아 돌보미 사누 양의 집엔 그동안의 전도로 요즘은 달고 다니던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에 와서 흑부리가 점점 줄어들어 보통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얼굴로 변모되어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베타웰(지터완 거주, 64)씨는 최근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골반암의 통증은 거의 사라지고 이른 부위가 우측 가슴상단으로 전이되어 때마침 한 국에 나간 목사님 한 분에게 진조된 암시귀를 팹으로 포장한 그비율라 구입을 부탁(암 예방과 치료에 기존 약품의 만 배 효과로 알려짐)하여 월말의 귀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가 완쾌되면 반드시 스스로 약속, 다짐한바 대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 이 나라 지도계층을 구원하는 기독교 개척의 일군으로 양장 서게 될 것입니다.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섭섭한 소식은 본선교사가 몽골로 부터 돌아오면서 도착 익일에 만났던 장애우 라이(48, 장로로 피택된 사람) 씨는 무슨 영문인지 선교사의 바니면달 장에

인교회 출입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9개월을 네팔이 아닌 타국에 있게 되어 저들과의 만남이 부득이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늘 위해서 잊지 않았던 기도,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저들의 경박한 행위가 끝내 죄악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선교사가 비단 모르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의 경박한 행위가 끝내 죄악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지난 달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과정과 네팔의 현장소식을 전하면서, 지금껏 한 번이라도 지성을 통하여 공개해본 적이 없던 선교사의 은행계좌를 알게 된은 자칫 원손이 하는 일을 오토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경솔한 행위라 하겠지만 그러나 뜻밖에 일어난 고난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아예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전파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시는 사랑을 믿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다만 영혼사랑의 일심 한가지로 네팔 선교 현장을 지키고 일구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대상으로 남을지라도 또한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후2015년 9월21일
네팔 라뭇돌, 마갈가운에서
김상봉 선교사 드림-
계좌번호/ 국민은행 457001-01-002622
우체국 102434-02-163989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

2015년 9월 10일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세광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광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리’는 뜻을 갖고 2년 전에 세워졌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개척하면서부터 오직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목숨을 걸겠다며 매일 밤 9시 기도회와 말씀준비와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전도를 위하여 소위 잘 나간다는 전도법을 배우고 화술도 익히고 상가, 길거리, 축회전도 등 열심을 다해 감당해 왔다. 그러나 3-4시간씩 전도를 다녀도 결신카드 한 두 장 받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전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성도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하고 있으니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지 부흥에 집착하지 말라며 말을 막았다.

그래도 어디 그런가. 이래로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권능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찾던 중에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를 소개 받게 되었다.

버스 전철로 몇 번씩 갈아타며 2시간 30분 만에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님이 학장으로 있는 세트전도 아카데미에 찾아갔다. 오고 가는 길만 5시간이 걸리니 정말 힘들었다. 개척교회에는 재정이 어려워 평가 배우기도 쉽지가 않다. 움직이면 돈이나가 안 움직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대로 믿고 행했더니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까지 개최하는 일이 일어났다.

평소 들어가기 어려웠던 장소, 대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선포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그것도 모자라서 배우자, 자녀까지 줄줄이 교적을 받아내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현장에서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충격이었다. 그렇게 교적을 받기 위해 갖은 미소에 애교까지 뽐내며 시간 투자, 물질 투자해도 교적 받기가 쉽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술술 묻는대로 다 말해주는 게 아닌가?

전도에 목말라 찾고 찾았는데 귀한 보배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전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에 다스리 부흥의 불씨가 도기를 기대한다.

요즘은 전도가 재미있어졌고 나가면 10명 이상 교적 받아 관리하기 바쁘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기대된다. 성전이 꼭 채워지는 바람을 가져보며 열심히 하나 닌나라 확정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전도를 아려워하는 목사님, 사모님들께 세트전도 배우보라고 권면하며 모든 교회에 많은 영혼 구원하여 부흥되어지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가져 본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박영수 목사님의 전도 노하우 전수를 감사드리며 세트전도가 더욱 부흥되어지길 기도한다.

세광교회 문귀자 사모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국루터교회 랜드마크 ‘컨콜디아서점’ 재건

기독인들에게 소중한 지성의 공간 제공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루터교회의 랜드마크 ‘컨콜디아서점’(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5-11)이 지난 14일(월) 오전 1시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 채플실에서 오픈강사에베를 드리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66년 문을 열고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소중한 지성의 공간이었던 컨콜디아서점 재건은 과거 한국 루터교회 전통을 회복하면서 미래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롭게 오픈하는 컨콜디아 서점은 한국루터관아위와 함께 MOU를 체결, 현대 상황에 맞춰 도서관뿐만 아니라, 루터교회의 유산인 전례용품, 최고의 기독교 문화 상품을 함께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점운영은 기독교한국루터회(LCKO)와 한국루터관아위(KLH) 아웃소싱에 따른 Global 협력과 미국



CPH를 비롯한 루터관아위 본부 및 세계 지부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날 예배는 전의영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영문서기)의 사회, 홍택주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국문서

기)의 기도, 김유성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회계)의 성경봉독, 김철환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의 ‘살리는 지식의 열쇠’란 제목의 설교, 한영복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부총회장)의 축도로 드려졌다.

‘빛, 일상 그리고 용기’ 두 번째 콘서트 개최

오는 10월 1일, 독보적인 기독공연 콘텐츠로 주목

‘빛’으로 ‘일상’을 살리고 했지만, ‘용기’가 필요한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는 ‘빛, 일상 그리고 용기’ 두 번째 콘서트가 오는 10월 1일 홍대 레드빅스페이스(Red Big Space)에서 개최된다.

빛, 일상, 용기까지 3가지 전혀 다른 주제를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세계관 있는 노래와 소소한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콘서트로, 단순 아티스트 공연이 아닌 관중의 참여가 도드라진 생생한 소통의 콘서트이다.

출연진으로는 극동방송 크리스천 음악감독 블레싱 MC, CCM 사역자, 인디뮤지션 미남오빠로 활발한

활동 중인 이윤화, 재미교포 싱어송라이터, 제주 생명나무 학교(대안학교) 교사 허기람, 대만 우클렐페 전문 싱어송라이터 모리슨 우(Morison Wu), 줄리어드 출신 싱어송라이터 크리스(Keuriseu), SM 엔터테인먼트 보컬트레이너 출신 황성대. 이렇게 5명의 다국적이고 실력있는 아티스트사역자들이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의 삶을 공연장으로 꺼내고 소통하는 방식의 공연이다. ‘빛, 일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연으로 관객 주도의 소통을 주도하고, 포토제닉 선정 등 다양한 방식의 관객의 참여로 생생한 소통 콘서트를 추구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공연 콘텐츠가 협소한 시장 상황에서, ‘빛, 일상, 용기’ 콘서트는 콘서트 내내 흐르는 감동 스토리, 실력을 겸비한 다양한 아티스트들, 진전하지만 독특한 관객 소통아이템 등으로 무장하여, 크리스천이라면 한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역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임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회로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 주시면 부흥사 연수 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을 주어 함께 성령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

울산 태화강변 및 울산대공원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설교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승구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3일(목) 울산에서 모여 성

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한 뒤 울산 태화강변 및 울산대공원 산책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중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등 동우회 회원들은 울산시 남구 문수로 울산사랑의교회(담임 최성진 목사)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후 10:3-10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승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사역의 현장에 자유주의 신학사조가 판치고 있는 이 때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엄기철 목사의 한글기도, 임성애 목사의 한글특송, 회원소개 및 인사, 고신대 김경철 교수의 WCC 반대활동 성과와 동성애확산 반대를 위한 활동계획 설명의 시간이 있었으며 참석자들과 합심하여 주례별기도를 함께 했다.

남북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교단발전과 부흥을 위해',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반대를 위해', '천주교 신앙지체 일치 반대를 위해', '북한 핵 포기과 전쟁방지를 위해', '성령충만을 위해' 정영진 목사, 조은혜 목사, 김경철 교수, 표재욱

목사, 최남성 목사, 최형택 목사가 각각 주례별기도를 인도하고 사회자의 인도에 합심하여 모두가 성령충만 받기 위해 소리 내어 뜨겁게 기도하고 최성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오찬을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울산 사랑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울산의 중심을 동서로 가르며 흐르는 울산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어주고 있는 태화강변과 울산 기발만한 곳 중에서 이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큰 규모의 자연환경에 친한 경으로 조성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일 년 내내 열리는 울산대공원을 거닐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11월 전반기에서의 모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9월 19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무슬림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창 16:10-11, 사 19:23-25)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창 16:10-11)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사 19:23-25)

오늘의 주제 ‘무슬림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의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무슬림 선교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선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약 28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창 16:11)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당시 애굽과 앗수르와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를 뜻합니다. 즉 아프리카의 아랍들인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실 중동의 기독교 역사는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 보다 훨씬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 650년경 마호메트에 의해 이슬람교 출현이후 기독교는 박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동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선교사의 예만 들어도 오늘날 현재 약 2만 7천여 명 중 10.43%인 2천 8백 여 명이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외에도 무슬림의 분포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전방개척 선교사들의 숫자 비율까지 합한다면 약 25%정도의 한국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예를 든다면 중동지역에 여자 가정주부역할을 하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2020년까지 20만명 파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PMA 필리핀 선교협의회)

21세기 들어 컴퓨터와 IT시대에 중동에 성령의 선교역사는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당국과 정부가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IT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랍어 성경을 다운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에서의 긍정적인 선교이야기는 성경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측면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 앗수르 제국이

었던 이라크와 시리아는 현재 엄청난 정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 이라크는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있고, 시리아는 현 정권과 반군세력의 내전 중에 IS 세력이 반군세력에 합류하면서 시리아 내전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선교역사에서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십자군 전쟁이후 초기의 무슬림 선교방법입니다.

첫째는, 13-14세기의 Raymond Lull 선교사의 방법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스페인 부호가장에서 출생하여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으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는 고관의 지위를 버리고, 유산으로 받은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의 바보(Fool of Love)가 되어 무슬림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 맞아 순교 당했습니다.

둘째는, 15세기 쿠사의 니콜라스의 무슬림 선교 방법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로서 라틴어 구판 번역을 감수하고 무슬림과 대화를 통한 교류에 노력했습니다.

2. 근 현대의 무슬림 선교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18세기의 헨리 마틴 선교사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는 영국 선교사로서 중앙아시아와 북인도의 광범위한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성경을 우르드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 하였습니다. 이후 성경번역이 무슬림 선교의 우선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둘째 인물은 19세기의 사무엘 즈웬머 선교사의 무슬림 선교방법입니다. 그는 미국선교사로 아랍의 여러 나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서구 기독교에 이슬람을 소개하는 다양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의 또 다른 공헌은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이슬람(꾸란과 모하마드) 이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셋째 인물은 케빈 그리슨(Kevin Greeson)입니다. 그는 낙타 전도법(Camel method)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전 전도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단계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선교에 경계심을 가진 무슬림 대상에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3. 무슬림 선교에 이슬람의 문화적 상황화를 적용한 분들입니다.

* 필 파샬 박사의 “무슬림 전도의 새 방법”(1982)입니다. 그는 국제 SIM 소속 미국 선교사로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서구 문화를 이식하려는 문화식민주의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슬람의 문화

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황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더들리 우드베리 박사의 “이슬람의 다섯 기둥의 재사용”이란 상황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사하다(신앙고백); 썰라트(기도); 자كات(종교세/자선); 라마단(금식); 하지(성지순례))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임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존 트라비스와 조이아 마시 등의 <내부자 운동 C5> 선교방법인 일종의 상황화 전략입니다. 이 C-scale 상황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4. 무슬림 선교에 전적으로 꾸란과 성경을 가지고 변증학적으로 선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 대표적인 분이 고든 니켈(Gordon Nickel) 박사입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서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성경에 대한 무슬림의 변조 비난에 대응하는 유순한 대답>이라는 훌륭한 책을 2014년에 캐나다에서 2015년 인도에서 출판했고, 한글로 번역되어(2015 백신종)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슬림의 질문에 유순하게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 또 한 가지의 무슬림 선교의 새로운 방법은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24명의 선지자들을 통한 양육식 전도 방법(전도 후 양육식이 아닌)입니다. 동남아 무슬림 마을(얌뽕뽕의 잠족 중심)에서 선교한 백신종 선교사의 실제방법입니다. 꾸란과 성경에 등장하는 23명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무슬림 선교를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무슬림 선교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도 주님의 구속언약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구속언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아시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저 중동이, 저 무슬림이 주님을 경배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 무슬림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구속 은총을 우리와 함께 찬미하는”(예 7:9-10)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설

정부 차원의 이슬람 정책 시급

오늘날 저 중동 시리아 내전에서 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집단, 즉 “이슬람국가”라고도 하고 ISIS(“아이시스”라고 읽음: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아니셀)라고도 하는 폭력집단의 기독교인 학살, 고대 문화재 파괴, 구미 각국인에 대한 인질과 살육 등 만행을 보노라면 이 지구촌에 무서운 적그리스도 집단이 종말적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할 만큼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 집단은 이람 회교 테러 조직의 검은 석유달러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무력을 확보하고 진 서방 이람 국가들에 대한 포격과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동시에 에티오피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수십만 난민들을 유랑하게 만들고 있건만 종교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전 세계는 이를 근원적으로 진압할 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무슬림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이 날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문화정책”적인 특별한 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는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66년 208명에 불과했지만 60년이 지난 오늘 25만 명으로 증가했고, 근래 동남아 지역의 다문화 근로인력 유입 등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는 4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국내 이슬람 인구는 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에는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4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슬람과의 다문화 공유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은 유럽 각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11년 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슬람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지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2011년 2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뮌헨에서의 국제안보

회의 연설에서 이슬람으로 인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 칼럼니스트 매킨 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원인을 네 가지로 보았다. 이슬람 테러리즘과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폭력적인 범죄행위, 그리고 마약 사용이 그것이라 한다. 그 중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무슬림에 의한 폭력과 테러 행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가 대부분 무슬림들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무슬림 세력에 의해 테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이슬람 전문가 유해석 선교사(FIM국제선교회 대표)는 지적한다.

이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경전 꾸란의 많은 구절이 알리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에 천국으로 안내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의 알리는 알리와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를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주지만, 타락의 길로 인도한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에게는 복수의 화신이 된다고 꾸란은 가르친다.

이러한 꾸란의 구절을 “칼의 구절(Words of Swat)”이라 부른다고 한다. “칼의 구절”들이 꾸란에는 109구절이 있다는 것이다. 독재타도나 “반미”의 이름으로 행하는 무슬림의 테러는 이슬람의 구원 사건이다. 이슬람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4가지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하드 전사가 되어 싸우다 죽는 것 외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슬람이 증가하면 테러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슬람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4개국을 순방한 이후 경제협력적인 취지에서 이슬람문화 발전을 정부가 오히려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일이다. 저 이슬람 폭력 집단의 난동과 유럽 각국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는 경제적 이득에만 치중한 이슬람 문화의 조정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고 신중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11시

4. 오리엔테이션: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구약학 (2)신약학 (3)조직신학 (4)교회사 (5)교회 행정학 (6)목회 윤리학

(7)헌법 (8)기독교교육 (9)교회성장학 (10)면접 (11)설교 실기(5분)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1부, 설교자용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동웅 고시위원장 목사 김민규
총무 목사 김병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새 힘을 얻으리라”(사 40:31)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담임	임종달 목사 중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정부용 목사 전 부총회장 대림별열교회 담임	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	하귀선 사모 세계터미널선교회

♡♡ 초 · 대 · 합 · 니 · 다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사모님!
사모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전국 사모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인내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귀한 동역자들을 뵙기 위하여
2015 제5회 전국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시간들을 모아 주님께 드리고자 준비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모님들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모회 임원 일동

- | 일 시 | 2015년 10월 19일(월) ~ 21일(수) 2박 3일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은혜와진리수양관
-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사모
- | 등 록 비 | 없음
- | 찾아오는길 | 지하철 1호선 명학역 하차(역앞 차량대기)
- | 문 의 | 회장 신동신 사모(H.P. 010-4129-6503)
총무 박경미 사모(H.P. 010-2167-7422)
- | 후원계좌 | 농협 351-0802-1891-43 신동신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일 정 표

♡ 첫째날 10월 19일(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2:00 -	등 록	환영!! 등록 및 숙소 배정
12:00 - 14:00	점 심 식 사	
14:00 - 16:00	개 회 예 배	강사 : 조용목 목사
16:00 - 18:00	레 크 레 이 션	강사 : 변원식 목사
18:00 - 19:00	저 녁 식 사	
19:00 -	특 별 집 회	찬양간증(하귀선 사모)

♡ 둘째날 10월 20일(화)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 - 07:00	기 상	개인QT
07:40 - 08:40	아 침 식 사	
08:40 - 10:10	탐 방	한국 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문
10:10 - 12:00	탐 방	농촌 테마파크 방문 및 산책
12:00 - 13:30	점 심 식 사	
13:30 - 17:45	관 광	한국민속촌
17:45 - 19:00	저 녁 식 사	
19:00 - 19:30	찬 양 과 경 배	인도 : 최은성 전도사
19:30 - 21:00	특 강 1	강사 : 임종달 목사

♡ 셋째날 10월 21일(수)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 - 07:00	기 상	개인QT
07:40 - 09:00	아 침 식 사	
09:00 - 10:30	특 강 2	강사 : 정부용 목사
10:30 - 12:00	폐 회 예 배	강사 : 진등용 목사
12:00 -	점 심 식 사	식사 후 각 지역지로!

* 모든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5 전국사모회 임원

고문	고문	고문	중경회장	중경회장
				
박희숙 사모 (성문교회)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김영숙 사모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박경미 사모 (순복음송리교회)	오희희 사모 (빛은빛교회)
회계	감사	협동총무	부서기	부회계
				
조정애 사모 (순복음익곡교회)	이은숙 사모 (순복음중앙교회)	최선희 사모 (예수나라교회)	김귀순 사모 (이세아순복음교회)	서수영 사모 (은혜중앙교회)